

최 신 판 례 예 규

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,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
사전법령재산-90, 2020.05.24

■ 질 의

-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,
-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각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
■ 회 신

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(이하 "반대주주"라 함)로부터 「상법」 제341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(이하 "주식매수청구권"이라 함)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른 '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'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'상호출자 금지'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의 의사, 거래경위,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 전체과정의 실질을 고려하여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,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
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:1 개인운동지도용역(PT)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

기준법령부가-120, 2020.05.22

■ 질 의

- 자문대상법인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"체육시설법")에 따라 구청에 '체력단련장업'으로 신고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장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
- 프로그램 중 일부는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가 회원에게 1:1로 제공하는 운동지도용역(Personal Training, 이하 "PT용역")으로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함
- 체육시설 이용회원은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대가가 책정되는 반면, PT용역은 횟수에 따라 대가가 책정되며 대가의 60% 정도가 체육지도자의 인건비로 지출됨

질의

-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개인운동지도용역(PT)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

■ 회 신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시설·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1:1 개인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
코로나19에 따라 본사가 모든 대리점에 일괄조건으로 지원하는 임대료지원금은 손금인정됨

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·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
서면법인-1312, 2020.05.26

■ 질 의

- 질의법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따라 모든 대리점주에게 임대료·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 할 계획이며,
 - － 본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중인 대리점에는 임대료 인하, 본사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임차중인 대리점에는 임대료 지원, 모든 대리점에 인건비 및 인력을 지원 할 예정임
 - － 임대료 지원금액은 대리점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의 약00%, 인건비 지원 규모는 대구지역과 기타지역을 차등하여 적용(같은 지역은 동을 적용)

질의내용

- 본사가 모든 대리점에 임대료·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접대비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

■ 회 신

본사인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주를 돕기 위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·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「법인세법」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,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

금액·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

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총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

서면법인-1677, 2020.04.20

■ 질 의

- 질의법인은 입회비와 연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비에 해당하는지를 문의

질의내용

- 소속회원사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(입회비, 연회비)가 손금산입되는 회비에 해당하는지

■ 회 신

귀 질의의 입회비, 연회비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◇ 서면-2018-법령해석법인-1291, 2018.06.28.

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총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「법인세법 시행령 (2018.2.13.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)」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